

추사 김정희, 글씨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다



강창훈 글 | 이부록 그림 | 163쪽

조선 시대 '서예가' 하면 우리는 흔히 김정희를 떠올리고, 그의 서체 '추사체'를 떠올린다. 추사체는 그의 호 '추사'에 붙인 서체 이름이다. 그는 조선 시대 뛰어난 학자이자 서예가이다. 이 책은 그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잔잔하게 그려 내고 있다. 늘그막에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"칠생 평생 벼루 열 개가 구멍 나고, 붓 천 자루가 몽당뽕이 되었다네." 한다. 그만큼 글씨 쓰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. 우리는 이 책에서 예술가이자 학자로서의 김정희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.

(학습 목표)

중국 글자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겨레는 한자를 빌려 문자 생활을 시작했다. 우리나라 대표 서예가는 통일신라의 김생과 최치원, 고려의 탄연, 조선의 안평대군·양사언·한호·김정희를 들 수 있다. 이 가운데 김정희는 서예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예술가라 할 수 있다. 우리는 이 책에서 예술가로서의 김정희와 학자로서의 김정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예술가로서의 김정희에서는 그가 어떻게 서예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렸는지 살펴볼 수 있고, 학자로서의 김정희에서는 그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.



- ◎ 조선 전기 유행했던 학문 흐름 '북학'이 어떤 학문인지 알아본다.
- ◎ 조선 시대 학자들은 청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보자.
- ◎ 김정희는 청나라 학자 두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데, 그 두 사람 이름은?
- ◎ 김정희가 공부했던 금석학과 금석문이란?
- ◎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 내력을 알아보자.

(독전 활동)

1. <세한도 歲寒圖> 그림 보고 자기 느낌 쓰기



▶ 그림 제목의 뜻이나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렸다는 것을 말해 주지 말자. 단지 그림을 텔레비전으로 보여 주고, 아이들에게 자신의 느낌과 이야기를 쓰게 하면 된다. 선생님은 이 공부로 아이들의 '직관'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이것을 할 때는 아이들 책상을 조금 벌려 주면 좋다. 잡담을 하지 않게 하고,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. 아이들의 느낌글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 느낌글 몇 편을 골라 발표하게 한다. 이때 레이저 포인터를 아이들에게 쥐어 주고, 이야기를 풀어 가게 하면 좋을 것이다.

2. <죽로지실 竹爐之室> 글씨 보고 자기 느낌과 이야기 쓰고 발표하기



▶ 선생님은 한자의 뜻과 글씨의 뜻(133쪽 참조)을 간단히 알려 준다. 마찬가지로 아이들 책상을 조금 벌려 주면 좋다. 이 글씨는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오는데, 아이들 또한 이것을 단박에 읽어 낼 것이다. 선생님은 이 공부로 어른들에게는 없는 아이들의 '직관'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느낌글 발표하기는 <세한도 歲寒圖> 발표하기와 똑같이 하면 된다.

(독후 활동)

1. <세한도 歲寒圖> 그리기

- 선생님은 책을 참조(122~138쪽)하여 <세한도 歲寒圖>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.
- <세한도 歲寒圖> 그림처럼 미색 복사 용지 A4 가로 윗부분을 적당히 잘라 낸다.
- 연필은 2B가 좋고, 연필심이 너무 날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.

▶ 이 공부의 목적은 '자세하게 그리기'다. 상상하여 그리기가 아니라 옛 그림을 그대로 모사한다는 기분으로 그리게 해야 한다. 잣나무 잎을 확대해 보여 주면서 이렇게 잎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일러 주고, 무얼 가장 먼저 그려야 하는지 알려 준다. 다 그림 다음에는 그림 왼편에 그림을 그리면서 들었던 마음을 붙잡아 쓰게 한다.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책상을 벌려 놓아야 한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<세한도 歲寒圖> 이미지 화질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.

2. 제주도 유배길 대목 연극으로 꾸며 보기

- 책에서는 7장 '귀양 길에도 꺾이지 않는 기개'다.
- 아이들과 같이 7장을 읽고 대본을 짜고, 역할을 정해 연극으로 꾸며 본다.

▶ 먼저 한 아이에게 대본을 짜 오게 한 다음, 이 대본을 중심으로 의논을 해서 더 촘촘하게 다듬는다. 그런 다음 배역을 정하고 연극을 올려 본다.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애드리브도 허용한다.

